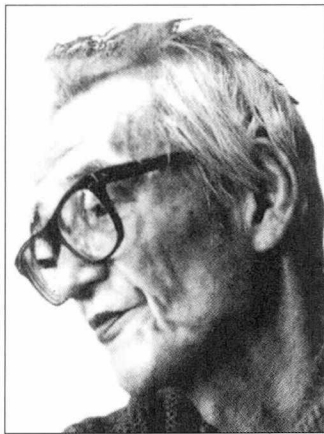


일본지성의 세계를 열어본다

근대성 탐구에서 한·일간 의제의 비판적 접근까지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인문학 서가를 두텁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관련서가 주로 일본의 대중문학이나 '일본 알기' 류의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일본의 독특한 근대경험을 반성적으로 통찰하거나 한일간의 민감한 의제를 양심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한 책이 부쩍 늘었다. 특히 일본의 근대성을 탐구한 책이 집중 소개돼 국내 독자에게 서구와는 다른 제3의 시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마루야마 마사오·후지타 쇼조·가라타니 코진.

근대적 사유와 인격의 성립

일본의 대가급 지식인인 마루야마 마사오와 후지타 쇼조의 저작이 눈에 띈다. 이들은 모두 일본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석학으로서 일본의 근대경험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학계의 천황'이라 불리는 마루야마 마

사오(丸山眞男)는 전후 50여년에 걸쳐 일본의 지성계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 사상가. 이미 국내에 《일본의 정치사상사 연구》(동나무)·《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한길사) 등의 저작이 번역된 바 있다.

이번에 소개된 《충성과 반역: 전환기 일본

의 정신사적 위상》(박충석·김석근 옮김, 나남출판)은 마루야마 마사오의 후기저작을 대표한다. 바쿠한(幕藩) 체제의 해체기부터 파시즘의 형성과 붕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기에 나타난 근대적 사유의 성숙과 주체적 인격의 확립과정을 탁월하게 분석한다. 핵심논문 중의 하나인 〈역사의식의 고층〉에서는 일본사상사가 '원형', '고층(古層)', '집요하게 반복되는 저음'을 매개로 해 '외래' 문화·사상을 무단히 수정하고 변용시켜왔음을 논증한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제자로서 '현대 일본 최후의 사상가'로 알려진 후지타 쇼조(藤田省三)는 일본 내 소수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지식인이자 60년대 안보반대투쟁과 반전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던 실천적 지식인이다. 그의 《전체주의의 시대경험》(이순애 역음·이홍락 옮김, 창작과비평사)은 천황제 국가

김석근 — 서로를 냉철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상·철학·역사 등 기본적인 인문학 저작들이 더 활발하게 소개돼야 한다. 특히 일본 학술서의 번역수준이 향상돼야 한다. 일본문화의 힘은 번역의 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형준 — 일본의 인문학적 끈기와 번역수준은 세계적이다. 한 지식인이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만 35년 동안 번역해왔고 들뢰즈·가타리의 《천개의 고원》도 7명의 전문가가 15년 동안 번역에 몰입했다. 우리의 인문학 번역수준도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

로서 일본의 본질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후지타의 문제의식은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뒤덮은 천황제국가의 본질을 대상화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저항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장대하고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자기 사회 속에 전체주의를 구축했다. 전체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그가 내세우는 것은 타자의 온전성을 존중하고 소중히 함으로써 개개인의 자아를 개편하는 것이다.

보편의 차원에서 근대의 본질 탐구

마루야마와 후지타가 천황제와 전체주의의 근대경험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이마무라 히토시와 가라타니 코진은 좀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근대의 본질을 탐구한다. 도쿄대학 교수이자 《현대사상》 편집위원인 이마무라 히토시(今村仁司)의 《근대성의 구조》(이수정 옮김, 민음사)는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근대의 전체상을 그려 보인다.

기계론적 세계상, 방법주의, 시민사회, 노동세계, 시간의식 등을 근대세계의 다섯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하는 이마무라는 근대이성과 근대정신은 비이성을 배제하고 억압함으로써 성립되었다고 비판하고 '타자공동체'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한다. '타자공동체'란 중심도 동일화도 배제도 없는 공동체다. 바로 자기 내부의 타자를 깨닫는 것이

일본 지식인의 저서를 바라보는 시각

◆ 왜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인가

지명관(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 — 일본 지식인은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실증성이 강하고 그 폭이 넓고 깊다. 그들의 오랜 학문적 전통과 광범한 전문 연구자 집단의 양상 때문이다. 이들의 저작이 소개됨으로써 국내 지식인이 구미 일변도의 편향에서 벗어나 세계적 안목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석근(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일본 지식인은 서구 사상을 흡수해 일본화하는 독특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 일본 사회를 버티게 하는 힘을 이들 비판적 지식인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서구적 학문에 대해 비판적 수용이 부족한 국내 지식인이 비서구 지식인의 일반성을 배우는 데 자극제가 될 것이다.

조형준(새물결 기획실장) —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80년대의 사회비판적 시각이 90년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30여년 동안 사회 비판적 전통을 탄력적으로 계승해왔다. 90년대 지식인 사회에 일본 지식인의 비판적 시각이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 왜 근대성의 탐구인가

지명관 — 국내 지식인도 이제는 근대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근대에 대해 비판적인 일본 지식인의 근대성 탐구가 국내에도 수용되고 있다.

김석근 — 일본은 비 서구 국가로서 유일하게 근대에 성공한 나라로 '근대성의 실험실'이라고 할 정도로 독특한 근대화 경험을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는 90년대 지식인의 담론으로 유행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의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일본인의 근대성·근대사상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형준 — 국내에서는 탈근대적 문제의식을 버리지 않지만 근대의 완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국내 지식인이 우리의 이중적 과제에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험이 중요한 암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지식인(출판인)의 과제는 무엇인가

지명관 — 한일 지식인의 상호이해와 지적 교류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배제와 차별의 회로를 끊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가라타니 코진(柄谷行人)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은유로서의 건축》(한나래) 등의 책이 번역돼 주목받기 시작했다. 새물결에서 펴낸 《담구 1·2》(권기돈 옮김)는 서구 근대철학의 핵심화두인 '타자'의 문제를 서구의 맥락과는 달리 독창적으로 탐구한다. 가라타니는 지금까지의 서양철학은 자기독백·대화의 차원에서만 사유해 왔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말하고 듣는' 입장에서 벗어나 '가르치고 배우는' 또는 '말고 사는' 입장으로의 태도전환을 요청한다. 이는 내가 속한 공동체 바깥에 있는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며 거기서 만나는 타자는 주체의 외부로 사유를 확장시키고 주체적 인간의 경험을 초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망언과 위안부 문제의 양심적 발언

한편, 한일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망언'과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심적 지식인의 발언도 선보이고 있다.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의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서은혜 옮김, 창작과비평사)는 평화와 인권을 기준으로 역사를 보는 좌파와 국체(國體)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우파의 평면적

과와 국체(國體)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우파의 평면적

대립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다.

가토에 따르면, 좌파의 '사죄' 논리에는 진정한 자아식이 없는 손쉬운 자기부정이며, 우파의 '망언' 논리에는 죄의식이 없는 억지 논리라고 꼬집는다. 전후 일본의 이 두가지 양상은 일본이라는 자아, 역사를 이어받는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인격분열의 양상이며 반복되는 사죄발언과 망언 역시 여기서 비롯된다고 갈파한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일본군 군대위안부》(이규태 옮김, 소화)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전체상과 인권침해의 실상을 실증적 자료로 파헤친다. 일본에서의 위안부 논쟁은 단지 위안부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역사인식과 아이덴티티를 묻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요시미는 위안부가 자유의사로 상행위를 한 '매춘부'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기 때문에 일본국가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조직화로서 인권침해·인종차별·민족차별·전쟁범죄라고 못박는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범죄사실의 인정과 사죄, 재발방지 조치의 시행 등을 제안한다.

아직까지 한일간의 지식 교류는 제한적이다. 한일간의 역사적 경험과 감정적 양극 때문에 자국의 정치·역사적 상황에 대해 비판적 안목과 관점을 가진 지식인들이 일차적인 배려의 대상이 된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일본의 지식인들이 수용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벽이 두텁다. 어찌 보면 일본 지식인들의 소개수준은 결국 국내 지식인들의 의식수준을 비추는 거울인 셈이다.

— 박천홍 기자

